



## 1. 뉴욕 및 유럽 증시 시황

<미국: 11월 테이퍼링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상승세>

- 다우 : 34,258.32(1.00%) / S&P500 : 4,394.02(0.91%) / 나스닥 : 14,896.85(1.02%)

- 8월 기준주택매매는 588만건(-2.0% mom)을 기록하며 예상치(589만, -1.7%) 하회

- 연준은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진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자산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,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테이퍼링을 더 기다릴 수 있으며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점도표에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

- 하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과 2022년 12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둘어 통과시켰으나, 공화당의 반발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

- 횡다그룹은 23일로 예정된 2.32억 위안 규모의 이자를 23일에 제때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, 종주절 이후 개장한 상해 증시는 +0.4% 상승 마감

- 미국 원유 재고가 7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, 달러화 강세에도 WTI유가는 전일대비 2.5% 상승한 72.23\$/bbl을 기록

- 횡다 그룹 이슈 완화에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, 연준의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이었고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완화되었다는 평가에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

<유럽: 횡다 그룹 이슈 완화에 상승세>

- STOXX600 : 463.20(0.99%)

- 9월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는 -4.0을 기록하며 예상치(-5.9)를 상회

- 호주의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파기로 미국과 프랑스가 갈등 양상을 보인 가운데, 마크롱 대통령이 10월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

- 횡다 그룹 이자지급 우려 완화에 상승세로 출발한 유럽 증시는, FOMC 경계감에도 장 중 상승세를 확대하며 마감

## 2. 뉴욕 증시 특징주

뉴욕 증시 상승세 마감. 에너지와 금융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, 유틸리티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.

- 에너지 기업 APA가 +7.19% 상승하며 S&P500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. 미국 원유 재고가 7주 연속 감소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기업 주가 역시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, APA의 경우 배당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며 특히 큰 폭의 상승세 기록. S&P500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7개를 에너지 업종이 차지했으며, 데본에너지(+6.69%), 마라톤 오일(+5.39%), 다이아몬드백(+5.31%) 등이 동반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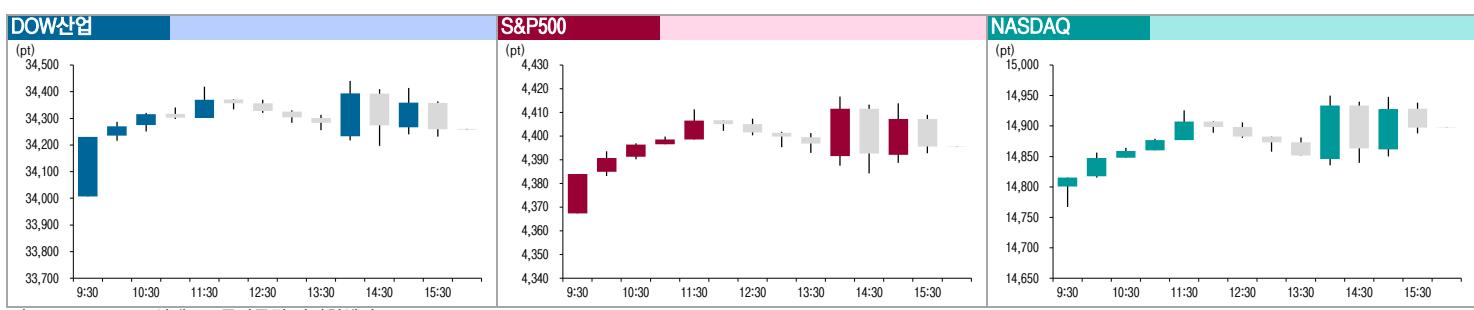
- 운송업체 페덱스가 -9.04% 하락하며 S&P500 기업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. 전일 장 종료 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. 여전히 운송수요가 많은 상황이지만, 공급망 이슈와 타이트한 고용시장 영향으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. 다른 운송업체 UPS 역시 -2.32% 하락.

- 금융주 주가가 전반적인 상승세 기록.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11월 테이퍼링 계획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,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위원이 증가한 영향. 웰스파고(+2.68%), BofA(+2.58%), 시티그룹(+1.94%) 등의 상업은행과 찰스슈왑(+2.86%), 골드만(+2.56%), 모건스탠리(+2.54%) 등 투자은행이 동반 상승.

- 음식료업체 제네럴 밀즈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+3.29% 상승.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수준이었고, 원자재 가격 상승과 비용 증가 우려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간 점에 투자자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가는 상승세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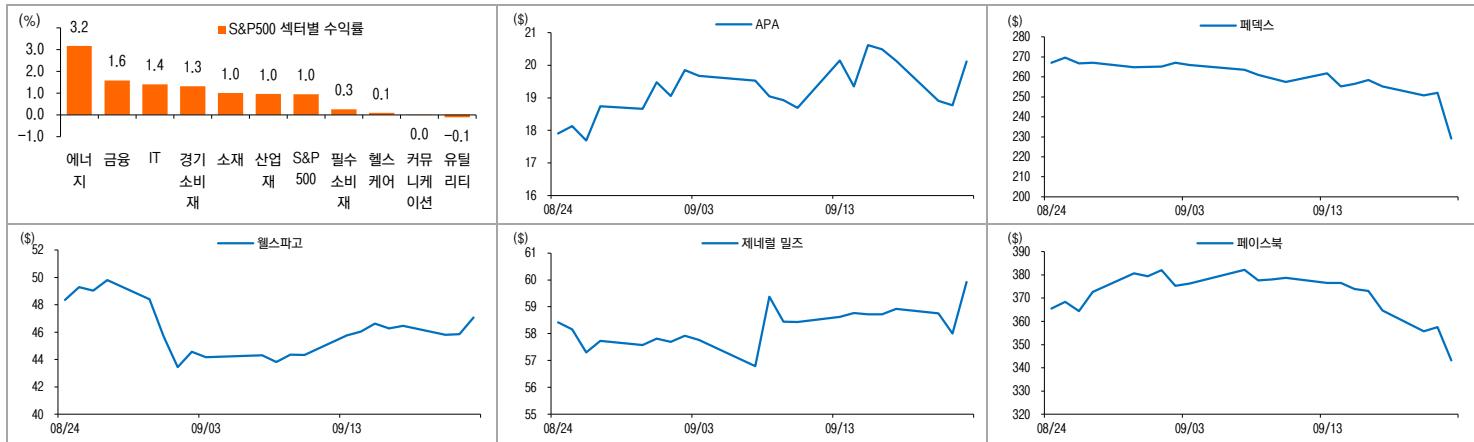
- SNS업체 페이스북이 -3.99% 하락. 애플이 새 버전의 iOS에서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했는데, 페이스북이 맞춤광고 등의 마케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 영향.

## 3. 뉴욕 3대지수 30분봉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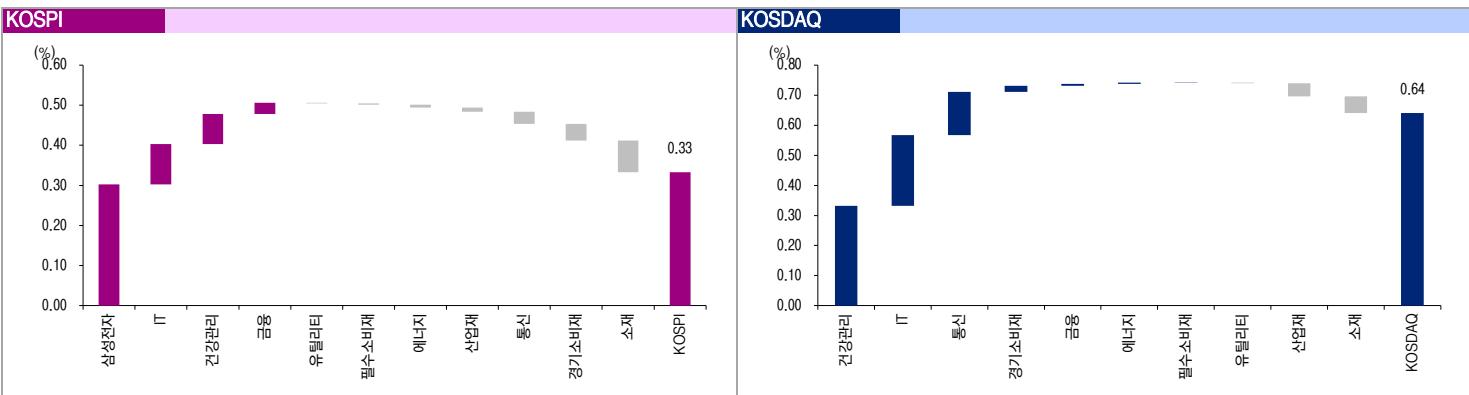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 4. 업종별 수익률 및 뉴욕 증시 특징주 최근 1개월 주가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 5. 전일 국내 증시 업종별 기여도



자료: WISEf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 6. 전일 국내 주식 시장 리포트 분석

### 1) 전일 보고서 발간 종목 중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

코드	종목	시가총액(억원)	전일 수익률(%)	목표주가	종가	상승여력(%)	보고서 발간건수
A105330	케이엔더블유	1,535	5.0	n/a	12,650	n/a	1
A060980	한라홀딩스	6,032	4.4	64,000	57,600	11.1	1
A036420	제이콘텐트리	8,062	3.8	59,000	45,700	29.1	1
A137400	피엔티	7,630	3.7	n/a	33,550	n/a	1
A011070	LG이노텍	51,121	3.4	287,000	216,000	32.9	1
A000660	SK하이닉스	778,963	2.9	145,000	107,000	35.5	1
A003490	대한항공	114,607	2.7	38,000	32,950	15.3	1
A206560	덱스터	3,308	2.0	n/a	13,050	n/a	1
A038500	삼표시멘트	5,647	1.9	7,000	5,260	33.1	1
A033290	코웨파션	6,921	1.8	n/a	7,820	n/a	1

주: 같은 종목의 보고서가 2개 이상일 경우, 목표주가는 평균값 사용

### 2) 전일 보고서 발간 종목 중 수익률 하위 10개 종목

코드	종목	시가총액(억원)	전일 수익률(%)	목표주가	종가	상승여력(%)	보고서 발간건수
A009540	한국조선해양	74,666	-11.0	170,000	105,500	61.1	1
A203400	에이비온	3,271	-8.1	n/a	21,450	n/a	1
A010620	현대미포조선	28,878	-7.0	86,000	72,300	18.9	1
A069080	웹젠	9,569	-3.4	41,000	27,100	51.3	1
A011780	금호석유	61,545	-3.1	380,000	202,000	88.1	1
A000080	하이트진로	23,880	-1.9	43,000	34,050	26.3	1
A042660	대우조선해양	30,900	-1.9	37,000	28,800	28.5	1
A035720	카카오	531,766	-1.7	160,000	119,500	33.9	1
A066570	LG전자	228,289	-1.1	190,000	139,500	36.2	1
A105630	한세실업	9,360	-1.1	34,000	23,400	45.3	1

주: 같은 종목의 보고서가 2개 이상일 경우, 목표주가는 평균값 사용

### 3) 최근 일주일간 새롭게 목표주가가 제시된 종목

코드	종목	시가총액(억원)	보고서 발간일	목표주가 대비 과리율(%)	발간 이후 수익률(%)	12F P/E(X)	12F P/B(X)

### 4) 전일 목표주가 상향 조정 / 하향 조정 상위 5개 종목

목표주가 상향 조정 상위 5개 종목				목표주가 하향 조정 상위 5개 종목					
코드	종목	현재주가	목표주가	목표주가 변화(%)	코드	종목	현재주가	목표주가	목표주가 변화(%)
A222800	신톱	29,600	37,800	5.00	A256150	한독크린텍	14,300	19,825	-8.43
A082640	동양생명	6,760	6,857	2.60	A042660	대우조선해양	28,800	29,200	-6.41
A003550	LG	94,600	145,500	1.59	A089590	제주항공	23,500	20,700	-5.55
A069080	웹젠	27,100	38,125	1.09	A080160	모두투어	27,350	34,333	-2.60
A079160	CJ CGV	31,800	32,200	0.63	A293490	카카오게임즈	72,200	102,600	-2.52

자료: WISEf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#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염동찬).  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본부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시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시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시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